



Photo | 이은경 집사(사랑-39)

매일묵상
2022. 1월호

발행인 | 조재호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성경묵상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http://new.gocheok.or.kr>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월 그라티아 갤러리



[시간여행]

염창이 작가

개인전 11회, 국내외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전시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여성작가협회 회장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붓끝에 스민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붓을 잡고 캔버스를 마주할 때 햇살은 더욱 청하하게 느껴지며, 살갗에 닿는 바람은 마치 여린 얼굴에 꽃물이 든 것 같이 설레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때론 진한 커피 향보다 물감 냄새가 그리운 걸 보면, 좋은 작품을 만나 마음이 설레는 것을 보면 남겨둔 다른 한길을 찾아들이 소중하며 행복합니다.

* 1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염창이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목차

기도를 배우다 - 성경과 자연과 가정	03
1·2월 달력	04
1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매일묵상으로 여는 2022년	08
주현절	09
민수기 해설	10
매일묵상, '위드유' 가정예배	14, 28, 42, 58, 72
신명기 해설	52
이달의 신앙도서 『구약이 이상해요』	76
매일묵상이 찾아준 감사와 행복 정옥희 집사	78
성경필사의 기쁨과 감사 양한라 집사	81
'위드유' 가정예배와 함께 김재광 목사	84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 소감	85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문화스포츠투부	8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필리핀 서림교·정은숙 협력선교사	88
교회소식	90
예배 안내	
부록	
- 가정예배 실천표	
- 발람과 그의 나귀 색칠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염창이 작가의 '시간여행'

기도를 배우다

성경과 자연과 가정



우치무라 간조

(1861-1930,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중시하며 이를 토대로 삶을 살아낸 인물이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가치를 결코 당시 부패한 종교 기득권에 대항했던 종교개혁의 전통과도 깊이 연관되는 기독교 사상가이다.

은혜로우신 예수여,
저희도 주님을 따라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성품의 발육을 꾀하게 하소서.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것으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적음으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성경 한 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유로운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읽고
날마다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매일 종사하는 비천한 노동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평범한 삶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게 하소서

김영봉 엮음, [사권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278.

1

2022

비전의 달

청년들은 환상을
노인들은 꿈을
(행 2:1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신정 • 송구영신예배
2 • 신년감사주일	3 • 12.1	4	5 • 소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여전도회주일	17 • 12.15	18	19	20 • 대한	21	22
23 • 신입교사훈련	24	25	26	27	28 • 청알기 (청소년 프로젝트) 시작	29
30	31					

TO DO LIST

☐	☐
☐	☐
☐	☐
☐	☐
☐	☐

2

2022

말씀의 달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신 3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1.1 • 설날	2	3	4 • 입춘	5
6 • L-12/M-12 헌신예배 • 하이성품스쿨 "감사"(8주) 시작	7	8	9 • L-12/M-12 상반기 개강	10	11	12
13 • 교육주일	14	15 • 1.15 • 정월 대보름	16	17 • 청년공동체 1부 스프링 신앙수련회 (17-19)	18	19 • 우수
20 • 상반기 교사계속 교육 '두드림'	21	22	23	24 • 청년공동체 2부 스프링 신앙수련회 (24-26)	25	26
27 • 상반기 교사계속 교육 '두드림'	28					

TO DO LIST

☐	☐
☐	☐
☐	☐
☐	☐
☐	☐

1월 [오늘의 말씀]

1일	민수기 1-2장	16일	주 일
2일	주 일	17일	민수기 28-29장
3일	민수기 3-4장	18일	민수기 30-31장
4일	민수기 5-6장	19일	민수기 32-33장
5일	민수기 7장	20일	민수기 34-36장
6일	민수기 8-10장	21일	신명기 1장
7일	민수기 11-12장	22일	신명기 2-3장
8일	민수기 13-14장	23일	주 일
9일	주 일	24일	신명기 4장
10일	민수기 15-16장	25일	신명기 5-6장
11일	민수기 17-19장	26일	신명기 7-8장
12일	민수기 20-21장	27일	신명기 9-10장
13일	민수기 22-23장	28일	신명기 11-12장
14일	민수기 24-25장	29일	신명기 13-15장
15일	민수기 26-27장	30일	주 일
		31일	신명기 16-18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1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http://ne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매일묵상으로 여는 2022년

한 줄 주야!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고척교회 [매일묵상]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2년째 코로나19로 마음껏 모이지 못했지만, 지난 2021년은 [매일묵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님이 큰 은혜를 받은 귀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 고척교회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와 많은 교회 활동이 제한되고 기존에 실천했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는 [매일묵상]으로 개인(가정)과 교회가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좋은 신앙운동을 이어나가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매일묵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하루하루 새겨잡시다. 그리하여 2022년 새해에도 [매일묵상]을 통해 가정마다 예배와 신앙의 계승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고척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임목사 **김재훈**

주현절

주현절의 기원과 의미

주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부활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의 하나였던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성탄절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현절은 주후 4세기 말에 성탄절과 나뉘어졌고, 마지막에 대강절이 생겨나면서 교회력의 기본 틀로 자리잡혔습니다. 성탄절기의 끝인 주현절에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선포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진 절기라면,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현절은 개신 교회 안에서 잊혀진 절기처럼,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현절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 원인 중 하나는 교회력 중심의 예배보다 연말연시에 성탄부터 신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행사가 이어지는 한국 교회의 목회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절은 '나타남' 또는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절기로,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현절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절기이며 온 세상에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 하루로 지키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기념합니다. 예전 색상은 흰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성탄절부터 시작되었던 기쁨도 함께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인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광야기’로 부릅니다. 민수기 안에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사할길쭉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에 두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고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또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1. 저자와 연대

민수기의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이 책의 중심인물인 모세로 간주합니다. 33장 2절은 모세가 광야생활에 대해 기록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건은 고고학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한 연대 문제는 현격한 논쟁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를 B.C. 1440-1260년까지로 잡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로 잡는다면,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수기는 B.C. 1400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목적과 배경

본서에서는 광야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광야에서의 소망이 본서에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민수기의 이야기가 전달됐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민수기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3. 내용과 구조

시내산 언약에 따른 공동체 조직과 출발 준비(1:1-10:10)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도착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라는 큰 틀 안에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의식에 관한 여러 율법을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의 출발과 광야 여정(10:11-25:18)

이제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길을 나섭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데, 곧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성읍들의 방어 상태와 그 주민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를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에 대한 형벌로 이들은 완전히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오로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조직과 가나안 땅 정복 준비(26:1-36:13)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남쪽이 아닌 동쪽에서 접근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율법, 특히 종교의식에 관한 율법들이 나오고, 마지막 34-35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문제를 미리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회막을 향하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15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1-2장

오늘의 말씀 | 민 1-2장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시작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칠 때 어떤 순서로 진을 쳐야 하는지,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2:1-9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회막을 둘러 가며 저마다 진 칠 자리를 배당받게 됩니다. 성막을 둘러싼 안쪽으로는 레위 종족이 둥글게 진을 칩니다. 이어서 각 지파가 회막을 향해 진 칩니다. 행진할 때도 순서를 따라 행했습니다. 진의 구조만 살펴보다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회막을 향해 진을 쳤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한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진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 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 우리 인생 여정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 2022년에 세운 계획과 목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의 중심에 늘 계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2. 은빛시니어 모든 어르신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소서.
3. 고척교회가 늘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있게 하시고, 고척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

찬 양

찬송가 440장

말 씀

창세기 12장 1-4절

나 누 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 이룬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질 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 스스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 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올 한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암 송

창세기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월 2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택하신 백성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1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3-4장

오늘의 말씀 | 민 3-4장

두 차례 인구조사를 통해 레위 지파의 서로 다른 그룹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다른 지파의 맏아들을 대신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거룩한 가문인 제사장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수가 다른 지파 맏아들의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은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성막을 옮기는 데 충분한 숫자의 레위인 성인 남자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3:5-39

레위 지파의 두 가지 중요한 임무는 첫째로 성막에 출입할 권리를 지니지 않은 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임무는 성막에서 시무하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돌보고, 행진할 때 그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이 해야 했던 일을 맡게 된 이유는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맏아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은 유월(Passover)되어 여호와께 바쳐졌고 가축의 첫 새끼는 희생제물로 드려졌으며, 맏아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사건 이후로 레위 지파가 성소의 일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 민수기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별되고 선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섬김의 자리를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택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소서.
2. 어와나를 섬기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소서.
3.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주소서.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0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5-6장

오늘의 말씀 | 민 5-6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6장에 제시된 규례는 부정을 예방하는 성격을 띠니다. 이 규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부정을 없앨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동안 성막이 정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정결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 민 6:1-27

구약성경에서 나실인은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가장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은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한 나실인이었습니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에게서는 머리를 자르는 것, 포도 열매에 속한 것과 그 열매로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먹거나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나실인 규정에서 이어지는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나실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복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민수기 6:22-27을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케 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부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결케 해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시며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2.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이 잠시 멈춰 있는 교회학교 전도대를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이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3.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거룩한 책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3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7장

오늘의 말씀 | 민 7장

민수기 7장은 다른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밝힙니다. 먼저 다른 지파들은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와 소들을 제공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성막과 그 덮개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가 주어졌고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 등을 날라야 했습니다. 고탕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다른 물건과 달리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지고 날라야 하는 고단하지만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 민 7:1-11

민수기 7장에서의 봉헌물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양을 두고 어떤 불평이나 망설임 없이 기꺼이 봉헌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가장 거룩한 물건은 수레에 신지 않고 직접 고탕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광야 시대에 가장 거룩한 성물인 법궤는 고탕 자손이 직접 메고 옮기도록 했지만 웃사와 아효는 블레셋 사람들 처럼 수레에 실어 옮기려 했기 때문에(삼상 6:1-18)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고와 고난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발상이 문제였습니다.

값지고 소중한 것일수록 ‘어깨로 지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해 나갈 때, 손쉬운 방법으로 편하게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손쉬운 방법으로 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교회와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와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이 회복되어 식당 봉사팀의 사역이 재개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만 취하길 원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게 하소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4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8-10장

오늘의 말씀 | 민 8-10장

민수기 8장에서는 여호와의 등잔대와 레위인의 성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3-4장에서 언급된 레위인의 임무에 이어 8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며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 묘사하고, 그 후에 지켜야 할 유월절에 관한 다양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덮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0장에서는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보여줍니다.

묵상할 본문 | 민 9:15-10:10

성막을 세우던 날이면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는 낮에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기 후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집합해 이동했는데, 그때 나팔을 부는 목적은 질서정연하게 각 지파별로 이동하기 위 함이었습니다. 나팔의 개수, 소리의 강약과 길이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 문에 착오나 실수 없이 목적에 맞게 정확히 나팔을 불어야 했고, 숙련된 아론계 제사 장이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하나씩 나 누어 봅시다.
- * 하나님 앞에서 죄악 된 모습을 보이는 등 완전하지 못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 *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 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2.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는 데코팀과 조경팀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 혜를 내려주소서.
3.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 은 은혜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91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11-12장

오늘의 말씀 | 민 11-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 어렵고 험난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을 갔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하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 민 11:1-15

다베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보이셨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에서 종 노릇할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기력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력이 다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보다 먹고사는 것이 뒤떨어지면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만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에서 구원함을 값없이 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최근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돌아보며 느낀 바를 나누어 봅시다.
- *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지 묵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 *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은혜로 받아 누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상례팀과 새하늘찬양대의 사역과 유가족을 위한 섬김이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소서.
3.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7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13-14장

오늘의 말씀 | 민 13-14장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 열두 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의 상태와 그곳 거주민의 사기를 보고할 임무를 지니고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들의 보고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반면 정탐꾼들은 직접 살펴본 사실에 과장된 표현을 덧붙이며 듣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견해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매우 격렬하게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결론 짓는 잘못을 범합니다.

묵상할 본문 | 민 13:1-30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잘 무장돼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불안하다고,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신했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가짐이어야 합니까?
- *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 *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백성들과 대비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비교하여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2. 문화스포츠클럽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이를 통해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3. 세계 선교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소서.

중보 기도

찬 양

찬송가 370장

말 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나 누 기

바울은 편지를 마치기 전에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담을 지우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가고, 악에서 건져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거하길 기도했습니다.

질 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일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거나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기 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 노트에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한 주 동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 보세요.

암 송

데살로니가후서 3: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월 9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90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15-16장

오늘의 말씀 | 민 15-16장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말씀 하십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려 속죄해야 했습니다. 안식 일에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16장에서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져 대적인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다고 하자 하나님의 진노로 염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16:1-35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16장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 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특별한 자리에서 일하도록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 250여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며 비방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 심판하시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갈라져 고라 자손을 삼켰고 250명은 불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이를 알았기에 자신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고 하는 2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 모세는 자신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2. 방송팀에게 함께하사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3.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모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게 하소서.

아론의 지팡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1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17-19장

오늘의 말씀 | 민 17-19장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온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권위에 도전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부정해졌을 때는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회복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17:1-13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후 하나님은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인간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정하신 질서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역할에 도전한 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다 망하게 됐다!”며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길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론을 제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다가 다시 죽을까봐 성막에 가까이 가길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2. 전산팀과 함께하사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으로 예배와 교회의 모든 부분이 든든히 서게 하소서.
3.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눗뱀을 쳐다본즉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51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21장

오늘의 말씀 | 민 20-21장

20장에서 신 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 물이 없자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이 나쁜 곳으로 오게 했냐”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를 정복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 가다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장대에 뱀뱀을 매달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이후 요단 동쪽 땅을 점령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21:4-9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 가다가 또다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며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심으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뱀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불뱀 사건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은 왜 뱀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보면 살게 하셨을까요?

*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2. 미디어홍보팀과 함께하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척교회가 아름답게 알려지게 하소서.
3.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5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22-23장

오늘의 말씀 | 민 22-23장

22장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발락과 모압 사람들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발람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높은 고관을 보내 계속 요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피하는 나귀를 때렸고,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십니다. 23장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발람은 발락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묵상할 본문 | 민 23:13-26

발람은 첫 번째 축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백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야곱의 티끌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 자신도 야곱처럼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예언을 마칩니다. 발람은 두 번째 축복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어떤 점술이나 복술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에 그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요 함께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며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예언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발람은 왜 발락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예언했습니까?
- * 발람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새물결팀과 함께하사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고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3. 교회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를 기억하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7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24-25장

오늘의 말씀 | 민 24-25장

24장에서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답고, 나라는 흥할 것이며 힘이 들소와 같다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시 말합니다.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싯딤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브올에 가담해 여호와께서 진노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고 비느하스가 여호와에 대한 질투심으로 나서서 여호와와 진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25:1-18

발람으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그들은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 신에게 절하며 바알브올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거절하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방 신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개입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 목매달게 했고 여호와께 거룩한 열심이 있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염병이 그쳤는데,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며 바알브올을 섬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품은 비느하스가 나서자 염병이 그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2. 선교부와 함께하사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역사가 이루어지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2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27장

오늘의 말씀 | 민 26-27장

26장에서 염병이 있던 뒤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준 대상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계수된 자는 601,730명이었습니다. 27장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시며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이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엘르아살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민 26:1-4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기록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모세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조사했습니다. 그 백성의 수는 603,550명이었습니다(1:46). 두 번째 조사한 인구는 601,730명으로, 이를 바탕으로 가나안 땅 정복 후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앞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후 조사한 인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민족이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쓸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2.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3.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 양

찬송가 86장

말 씀

시편 146편 1-10절

나 누 기

우리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도움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실하신 분입니다.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질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 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힘들 때 의지하는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돌아가면서 종이에 적은 것 중 한 가지씩 버립니다. 2개가 남았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암 송

시편 146: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월 16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1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28-29장

오늘의 말씀 | 민 28-29장

민수기 28-29장에 나온 제사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레위기 23장의 규정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어서 안식일, 초하루 규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유월절(무교절),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칠칠절(맥추절), 광야생활의 고난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장막절(초막절)이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묵상할 본문 | 민 29:1-11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며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팔절은 새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하며 성회로 모이는 날로, 나팔을 불어 기념해야 했습니다(29:1). 반면 7월 10일은 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로 모여 금식하며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29:7).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일 년 중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에는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죄에 대해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예배 시간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죄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던 않습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온전히 올려 드리길 소망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절기 때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

1. 예배를 통한 기쁨과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게 하소서.
2. 새가족양육부 리더십(교역자, 부장, 운영팀장, 새가족영접팀장, 새가족정착팀장, 학사지원팀장, 신앙운동팀장)에게 지혜를 주소서.
3.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단의 전략을 막아 주시고, 한국 교회가 늘 깨어 다양한 이단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신중하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61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30-31장

오늘의 말씀 | 민 30-31장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 가르쳐주시며, 3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여호와와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와 원수라는 뜻입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 브올에서 바알 숭배와 음행에 가담하게 했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미디안의 악행은 하나님께 반역과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특히 바알브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의를 행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여해 승리한 사실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갚으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입증합니다.

묵상할 본문 | 민 30: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에게 서원을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서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이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했을 경우, 그 서원은 아버지의 권위와 허락 하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 없으면 딸은 모든 서원을 지켜야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에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면서, 판단이 미성숙한 자식의 서원에 대해 그 부모가 실행 여부를 판단한 뒤에 행하게 하신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결심한 서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중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완전히 몰입하여 깊이 있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원하여 서원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중하게 서원을 드리고, 약속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게 하소서.
2. 전도부 리더십(교역자, 부장, 운영팀장, 전도대장, 중보기도팀장, 기도실운영팀장, 전도학교팀장, 중보기도학교팀장)에게 지혜를 주소서.
3. 코로나19로부터 국내외 선교지와 미자립 신앙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과 모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8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32-33장

오늘의 말씀 | 민 32-33장

32장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대신, 요단강 동편 땅에서 살게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들의 많은 가족 떼를 키우기에 그 땅이 매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지파의 요청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는 행위라고 꾸짖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함께 싸우되 그 땅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 자손들과 체결한 내용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령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라는 내용입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출애굽 전체 노정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묵상할 본문 | 민 33:40-56

모세는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진의 위치가 계속 바뀐 것은 이스라엘이 전투마다 승리를 얻어 전진했음을 의미합니다(33:40-48).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마지막 진을 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33:48).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면 그곳 원주민을 추방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든 흔적도 완벽히 척결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33:51-53). 가나안의 우상과 음란한 문화를 남겨 둘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눈엣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33:55).

삶의 적용과 물음

*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과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내 삶의 눈엣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버려야 했으나 즐기는 세상 문화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2. 교회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게 하시고, 재정부원이 회계, 계수, 재무, 운용을 선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있는 기독교 리더십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나가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7장
* 오늘의 말씀: 민수기 34-36장

오늘의 말씀 | 민 34-36장

34장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의 사방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할 지도자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35장에서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십니다. 레위인에게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레위인을 통해 이정표를 세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막의 일을 돕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레위인만큼은 땀 흘려 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직접 먹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규범을 알려주십니다. 36장에서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의 기업을 이을 남자 자손이 없어서 시집 간 딸의 유산에 나누어주는 규범을 알려주십니다.

묵상할 본문 | 민 35:29-3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거주하는 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확히 정해 주셨습니다(35:29). 사람을 죽인 자의 대해서는 여러 증인의 증언에 따라 고의로 죽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때만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35:30-31). 또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내고 풀려나는 일은 금지하셨습니다(35:3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쉽게 다루거나 억울한 판결로 복수가 횡행하지 못하게 구체적인 판결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규례입니다(35:33-34).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데 가장 취약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학교, 일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 여성 상속자들을 보호하시고 땅 분배에 대한 공정성도 지키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게 닥친 문제 중 하나님의 공정한 해법이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일터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2.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차량부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3. 우리나라가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하고 권장하지 않도록 잘못된 흐름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이는 ~말씀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명칭으로 삼는 유대인들의 관례에서 기인된 것으로 칠십인역은 두 번째 율법이라 불렸으며, 한글 성경은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이란 뜻입니다.

1. 저자와 연대

본서는 구약과 신약(구약 40여 회, 신약 80여 회) 전반에 걸쳐 모세가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모세가 설교한 내용임을 감안하면 본서의 저작 연대는 B.C. 1407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2. 목적과 배경



※ 신명기의 배경과 무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며 광야 유랑 생활을 마무리했던 요단 동편 모압 평원과 주변 국가인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모세가 120년 일생을 마감한 느보산 등이 중심 무대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어는 ‘기억하라’, ‘언약’, ‘순종’ 등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억압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지속해서 권면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위치한 요단강 근처 평원에서 기록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3. 내용과 구조

제1부: 모세의 설교(1-30장)

1) 머리말(1:1-5)

본 단락은 모세의 고별 설교 제1부를 시작하는 머리말입니다. 신명기의 고별 설교가 행해진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제1부 설교의 첫머리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역사적인 서언: 모세의 첫 번째 설교(1:6-4:43)

호렘산 가나안 정복 명령을 회고하며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요단 동편 지역 정복과 분배, 가나안 입성을 소원한 모세의 간구에 대한 회고가 기록돼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을 선정하면서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3) 율법: 모세의 두 번째 설교(4:44-26:19)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강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덕목을 말해 줍니다.

4) 축복과 저주: 모세의 세 번째 설교(27:1-30:20)

선민이 지켜야 할 각 율법 조항을 종합하여 재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관련
한 규례, 정치와 사법, 종교 제도의 규례, 일반 사회생활 규례 등 실질적인 생
활 규례와 신앙의 덕목을 정리해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촉구합
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입성 기념 돌비와 돌단 축조, 기념 제사, 축복과 저
주 선포의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제2부: 언약의 연속성(31-34장)

임종을 앞둔 모세는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교체하며 권면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지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유언을 통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34장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서는 지도권 계승과 모세에 대한 추모로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5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1장

오늘의 말씀 | 신 1장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때를 회고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아모리 족속을 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도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묵상할 본문 | 신 1:34-46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 중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교만하게 행하다, 방자하게 행하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경솔히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자 고집부리며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었음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보다 앞서 행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합니까?

*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내 맘대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진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2. 교회 전체 살림을 운영하는 총무부원들에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안전관리, 자재관리, 시설관리, 대외협력, 경축, 상담, 홍보 사역이 잘 되게 하소서.
3.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역사가 이루어지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2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3장

오늘의 말씀 | 신 2-3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해 북상하라고 지시하시며, 그 길에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과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와 롯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과 아모리 족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군인이 모두 죽어 전투력을 잃은 상태에서 전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넘겼고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리니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3:23-29

모세는 신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석에게 물을 내려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혈기대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자신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다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리더로 서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마땅히 ‘일어나’(2:24)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쟁취해야 함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 모세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책망과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오늘 제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2. 예배부원(운영, 웰컴, 출입문영접, 본당영접, 성찬예식, 세례예식, 이단대응)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먼저 은혜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3.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더 이상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고 소멸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

찬 양

찬송가 502장

말 씀

마태복음 5장 13-16절

나 누 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짠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역할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내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빛은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두루 비춰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질 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기 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한 주 동안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암 송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월 23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믿음의 유산을 통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1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오늘의 말씀 | 신 4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율법의 완전함에 기초합니다(4:1-8).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은 사건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5-40절에서 제2계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41절 이하에서는 도피성을 설치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구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4:32-40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 막연한 상상만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살피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확신에 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과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은 참된 여호와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날들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며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확신에 찬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

1.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소서.
2. 임마누엘찬양대를 위하여. 주일 2부 예배가 임마누엘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3.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7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5-6장

오늘의 말씀 | 신 5-6장

두 번째 설교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주로 언약 신앙의 본질과 상세한 언약 규정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는 광경을 회고하며 거기에 새겨진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6장에서는 '쉐마'라고 하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경건한 자들이 낭송하는 신앙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쉐마의 주제 역시 '여호와 사랑'이라고 요약되는데, 이는 본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특히 10-25절에서는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6:4-9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는 본문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자 삶의 규정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말씀대로 따르기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 보일 수 있도록 새기고,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지나쳐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져 있는 성도의 가정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문과 벽,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자 무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또 모두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나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노력합니까?

오늘의 기도

1. 말씀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 공동체를 범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2. 시온찬양대를 위하여. 주일 3부 예배 시온찬양대의 찬양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직장인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2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7-8장

오늘의 말씀 | 신 7-8장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나 그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 숭배와 이방 세력을 철저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위한 성전(聖戰)이라는 개념을 내포한 것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언약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자만심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고, 경제적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과 재주로 모든 축복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8:11-20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잘 잊습니다. 특히 은혜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잘 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때 잠깐 감사할 순 있어도 끝까지 그 감흥을 기억하는 일은 드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였다면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은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기에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소리칩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과 물음

*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그 은혜를 잊은 채로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은혜가 내 의지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삶 모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가브리엘찬양대를 위하여. 오후 찬양예배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또한 같은 찬송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3. 다음 세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꿈과 비전을 향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4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9-10장

오늘의 말씀 | 신 9-10장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밝힙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대항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출애굽 뒤에 이스라엘이 거듭 범했던 반역과 불순종의 자취와 모세 자신의 중보기도를 상기시킵니다. 1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그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표시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10:12-22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이방 신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거짓 신들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종교는 끝도 없이 물질을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 길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과 현신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 사랑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실로암찬양대를 위하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실로암찬양대의 찬양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뿌리가 곳곳에 심겨지고 성도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소서.

축복과 저주의 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6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11-12장

오늘의 말씀 | 신 11-12장

11장에서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시킨 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결론에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양자택일을 강조합니다. 12장에서 16장 17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성소에 관한 규정과 고기 먹는 규정,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와 신앙 우선주의로 요약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칙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묵상할 본문 | 신 11:26-3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에 영원한 상징이 되는 두 산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 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주가 선포된 에발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으로 들어서는 순종의 길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저주를 받는 불순종의 길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고난과 실망만이 가득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축복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이미 저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심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2. 주일 2부, 3부예배 찬양팀을 위하여. 주일 2부와 3부예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1장
* 오늘의 말씀: 신명기 13-15장

오늘의 말씀 | 신 13-15장

13장에서 우상 숭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단호하게 처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이교적인 악습을 금하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할 것을 명합니다. 매년 바치는 십일조,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째에 바쳐야 했던 십일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7년 주기로 하여 그 마지막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으로, 이 해에는 동족의 빚을 탕감해 주고, 종으로 팔린 히브리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말미에는 소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초태생들을 살려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규례를 소개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신 14:22-29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의무에 해당하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살도록 십일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것이 아님을 늘 상기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물질 등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물질, 시간, 재능 등)의 십일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그리스도인으로서 현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
2. 주일 오후 찬양팀을 위하여. 주일 오후예배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팀에게 능력을 주시고, 드러지는 찬송 시간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3. 복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하 교회에서 힘겹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내가 보았도다

찬 양

찬송가 390장

말 씀

출애굽기 3장 1-10절

나 누 기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셨습니다(3:7).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시고 이루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질 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 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유튜브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검색해 함께 불러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암 송

출애굽기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월 30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유월절 어린 양의 피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5장
- * 오늘의 말씀: 신명기 16-18장

오늘의 말씀 | 신 16-18장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지키는 세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는 여러 가지 율법 규정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17장부터 18장 초반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재판관, 제사장, 그리고 왕과 선지자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묵상할 본문 | 신 16:1-8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애굽의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하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이는 출애굽 시대의 어린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죄와 죽음이 넘어갔음을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수요일전 찬양팀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3.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하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구약이 이상해요

차준희, 새물결플러스(2011)



오경은 성경 전체의 등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는 오경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온갖 난제와 오해 그리고 곡해로 본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하거나 잘못 알려진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오경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이해에도 결정적인 해를 끼칩니다. 이에, 이 책의 저자는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할 법한 구약의 난제를 탄탄한 학문적 근거에 기초하되 알기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차준희 교수는 전문 성서학자이고 현장 목회를 경험한 목사이면서도, 스스로 “구약 전도사”로 칭합니다. 그는 구약의 대중화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늘 학계와 현장, 신학과 교회, 서재와 시장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의 풍성함을 껴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런 저자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아하!’ 하며 감탄과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 감흥은 자신이 두리몽실 넘겨 줬었던 지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바른 진리를 알게 되는 희열이고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반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옆면의 목차만 찬찬히 읽어도 지금 당장 사서 읽고 싶은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꼭 일독을 권합니다.

〈목차〉

머리말: 인생의 지도인 성경

1장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우리”(창 1:26)

2장 인간이 흙에서 왔다고?: 흙보다 못한 먼지에서 온 인간(창 2:7)

3장 죽음이란?: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 혹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4장 감히 여자가? 여자가 어때서?: “돕는 배필”(창 2:18)

5장 죄를 다스리라니?: 죄의 총동(창 4:7)

6장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창 6:6)

7장 동물도 언약의 파트너라고?: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창 9:16)

8장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저주받는다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창 9:25)

9장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곧 나다”(출 3:14)

10장 파라오가 억울하다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출 4:21)

11장 모세를 죽이려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출 4:24)

12장 장정만 60만이면 총 200~300만 명이라고?: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가람이요”(출 12:37)

13장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죄를 갚되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

14장 동일하게 복수하라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출 21:23-25)

15장 새끼와 그 어미의 젖을 섞지 말라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출 23:19)

16장 생명책은 뭐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

17장 구약의 제사, 다 폐기된 것 아닌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레 1:9)

18장 아사셀! 누구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레 16:10)

19장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거룩함이니라”(레 19:2)

20장 왜 미리암만 가지고 그러시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민 12:10)

21장 모세의 죄, 무슨 죄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민 20:12)

22장 십일조가 세 종류나 된다고?: 제사장용, 제사용, 약자용 십일조(신 14:22-29)

23장 가난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5,11)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새해에 모세 오경부터 성경통독을 시작하시려는 분, 난제 구절 풀이를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싶은 분,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3)

매일묵상이 찾아준 감사와 행복

• 정 옥 희 집사(섬김-1)



어느덧 [매일묵상]으로 아침을 깨운 2년 여의 시간들.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살며시 미소 짓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 20대까지 하나님 나라

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다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인 시택을 맞아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뭔지 몰라 절실함도,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남편 따라 교회 다니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름 열심 있는 교인이 되고자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목장 리더로 섬기며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교인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교회생활이 벌써 20년째 접어들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시간 낭비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모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공허함은 주님 외에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또한 떨쳐 버릴 수 없어서 마음을 다잡

고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자, 기도해 보자,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바뀌지 않을까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본인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말씀에 다가서는 내가 되기 위해 범위를 정해 드라마바이블로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한 감사일기를 쓰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에 찾아온 코로나19가 제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이 어려워졌고 목장 모임을 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주일의 교회 생활이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편안함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목장 리더와 교사 사역도 웬지 모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른 아침에 아파트 뒷산 산책을 다녀오는 여유도 생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를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드리다 보니 새벽에 눈 떠 실시간으로 드리는 새벽기도

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매번 몇 주만 하거나 특별새벽기도 때만 잠깐 예배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새벽기도를 유튜브로 쉽게 접할 수 있다니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설명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던 부분을 그날 그날 말씀을 통해 본문의 핵심을 짚어 알려주니 이해가 되고 내일 본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30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드리는 개인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제 마음은 한없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하루를 여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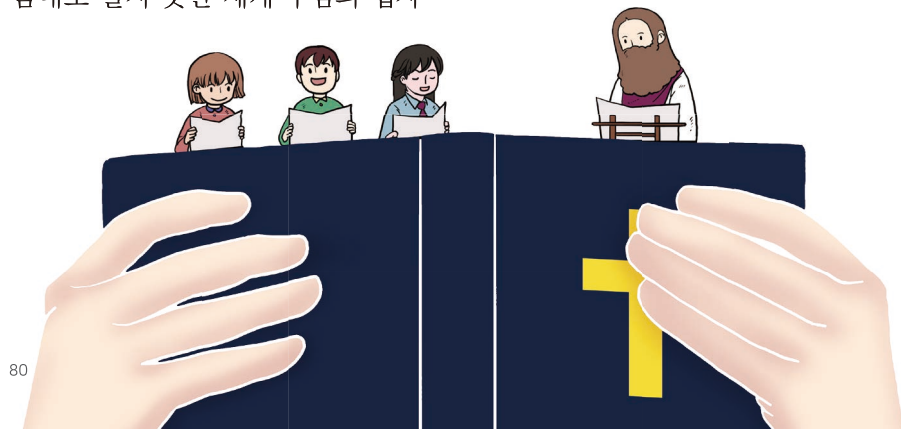
감사일기 쓰기와 새벽기도회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들과의 일상은 정말 소중한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니기 싫던 직장도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맡겨진 목장 식구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 긴 방황 속에서 헤맸던 신앙생활이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이 50이 넘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 잘못될까 노심초사 걱정했던 딸들은 고운 심성과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고, 지겹게만 여겼던 직장은 경제적인 면을 해소하는 곳이 아닌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저를 목장 리더로 세워주시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게 주님의 십자

가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라는 지상 명령 아닐까 합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일기를 쓰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진 복을 세어보게 됩니다. 말씀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인생 후반기를 살아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으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를 이런 소중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필사의 기쁨과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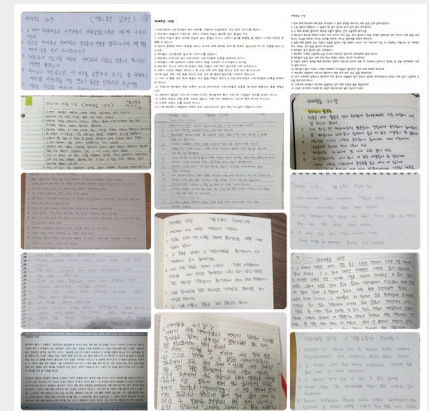
• 양한라 집사(기쁨-6)

살롱^^

기쁨교구 6목장 리더 양한라 집사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기쁨교구 마을장님들과 리더들은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성경필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마을에 속한 6명의 마을장님들과 리더들은 히브리서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요약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께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9월. 교구 목사님께서는 지난 여름 마을장님들과 리더들만 진행했던 성경필사를 이번에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자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마을에서 히브리서를 필사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목장 식구들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참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목장 SNS 단톡방에 성경필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 14명이 함께 하겠다고 이름을 올리고 10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필사에 참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14명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고, 함께 하지 못했다면 나누지 못했을 감동적인 후기와 받은 은혜는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여하신 목장 식구들의 소감 중 일부를 모은 것입니다.



<기쁨-6목장 성경필사 모음 중 일부>

〈기쁨-6목장 성경필사 모음 중 일부〉

1.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백진옥 집사님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2.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박세라 집사님

36년간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일독해 본 적이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올해부터 매일 출퇴근길에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필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3. 헝가리에서도 일편단심 주님 바라기 김상동 집사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저에게 필사를 통해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4.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심지연 성도님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 같은데 이렇게 동참해서 자필로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5.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오정현 집사님

성경을 읽고 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며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모든 교구 식구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6. 항상 깨어 있는 자녀 진연심 집사님

소중한 성경필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항상 깨어 있는 주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해야겠다고 기도해 봅니다.

7. 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전지은 성도님

처음 성경필사를 해 봤습니다. 그만큼 기대되기도 하고, 28장이 짧아서 안심도 되고. 두근두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큰 위안이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바로 그 말씀! 28장 20절.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다시 한번 제게 주시는 그 말씀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목장 가족들도 하루하루 힘내시고 말씀 안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과 성경필사라는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마지막 인사 또한 '샬롬'으로 전하며 평안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위드유' 가정예배와 함께

안녕하세요!

김재광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매일묵상집을 발행했습니다. 묵상집을 통해 모든 성도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예배이기에 매일묵상집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 주에 위임목사님을 비롯해 교역자들이 함께 가정예배 영상을 촬영해 예배

드리기 어려운 가정이 영상을 통해 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 많은 가정이 짧은 소감과 함께 실천표를 매달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한 수기를 읽으면서 가정에서 매주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드려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번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족이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고, 질문을 나누며 서로 생각을 알아갈 수 있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예배드리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정이 있어 감사합니다. 계속 예배가 이어져 신앙이 전수되고 기도로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귀한 가정예배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달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표 소감문

부족하지만 가정예배로 대림절 촛불 점화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수호(고등부)

이번 달도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배수환(고등부)

분주하지만 가정예배를 통해 모이게 하시고 감사한 것을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상선 집사(섬김-14)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 정애희 권사(사랑-39)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중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최성환 장로·김동례 권사(사랑-8)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 김용갑·이숙진 집사·김태연·김하연(사랑-36)

* 그 외에 실천표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김경동, 김지혜 집사, 김시우, 김시운(기쁨-17)

* 모든 성도가 함께 가정예배를 실천합니다.

1인 가족이나 부부도 [매일묵상]의 '위드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실천표를 꼭 제출해 주세요.

문화스포츠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과 기쁨의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작년을 포함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화스포츠부 사역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았고, 특히 교제가 활발했던 문화스포츠부 사역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문화스포츠부의 사역도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화스포츠부 모든 구성원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문화스포츠부는 운영, 문화선교, 문화행사, 꿈샘문화교실, 동호회, 스포츠 총 6팀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운영팀은 문화스포츠부 사역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고민하며 향후 운영방안을 계획합니다. 또한 문화스포츠부 안에 다른 부서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지원합니다. 문화선교팀은 연 1~2회 정도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드라마와 워십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문화행사팀도 필요에 따라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진행해왔고, 지금은 그라티아카페에서 작가들의 정기 전시회만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장 공연과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문화공연〉



〈그라티아카페 전시〉

꿈샘문화교실은 평생교육원과 함께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멈췄습니다. 올해부터는 평생교육원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꿈샘문화교실만 운영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회 문화교실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동호회팀은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동호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상 복귀에 맞춰 모임이 활발해지면 행정적인 지원도 적절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스포츠팀은 전교인 체육대회와 같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스포츠 행사와 비전센터 체육관 운영에 관한 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합니다. 특별히 체육관은 작년 11월에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마쳤고 12월부터 다시 개방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른 제한적인 이용이지만, 하나둘씩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문화스포츠부의 올 한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위축됐던 문화스포츠부의 모든 사역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문화스포츠부의 구성원들은 그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부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필리핀

• 서림교·정은숙 선교사(혈력선교사, 안티폴로 하나님의 영광교회)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1년부터 필리핀의 안티폴로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자녀 학교인 '마닐라한국아카데미'에서 교사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안티폴로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세워 현지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저희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인이 늘면서 가정집의 차고를 빌려 예배드리다가, 2층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지금의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hurch Schooling

필리핀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학부모들이 주마다 학교에 가서 수업 과제를 받아다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 중 대학생들을 교사로 뽑아 1차에 아이들 57명을 가르치게 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서 2차 모집 때는 123명이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료이고, 교사들에게는 저희 생활비에서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나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필리핀의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돼 교인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한국 교회들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금까지 24회 식자재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90여 가정에서 시작해 24차에는 174가정, 이번 성탄절에는 200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정당 쌀 5kg, 계란 1판 등의 수준으로 식자재 나눔을 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부터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교회 본당과 마당에 탁자를 놓고 도서관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원격으로 하게 되자, 고등학생(필리핀은 중학교가 없음)과 대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형편이라 학습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한국 교회들의 도움으로 주방 위에 2층을 올려 아주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2021년 1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증축 공사), 한국에서 보내 주신 중고 컴퓨터와 노트북, 프린터를 비치해 학교 수업에 활용하게 했습니다. 도서관이 아주 작는데 이용할 사람은 많아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일을 정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요일별로 명단을 작성해 출석 관리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2020년 처음 락다운이 시작됐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영상을 만들어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핸드북을 만들어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재가 풀리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강화되면 교사들이 마을로 찾아가 아이들을 조금씩 모아놓고 예배드리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전에는 아동부 전체(80~100명)가 주일 아침에 한 번 예배드렸는데, 요즘은 토요일에 어린이 예배를 반별로 나눠 5번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사 2명과 교사 38명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아이들을 관리해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아이들이 많이 늘어 180~2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고척교회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소식

1월

교회

- 송구영신예배 | 1일(토) 오전 0시
- 신년감사주일 | 2일(주일)
- 여전도회주일 | 16일(주일)

교회학교

- 신입교사훈련 | 23일(주일) 찬양예배 시
- 청알기(청소년 프로젝트) 시작 | 28일(금)

예배시간 안내

G O C H E O K . P R E S B Y T E R I A N . C H U R C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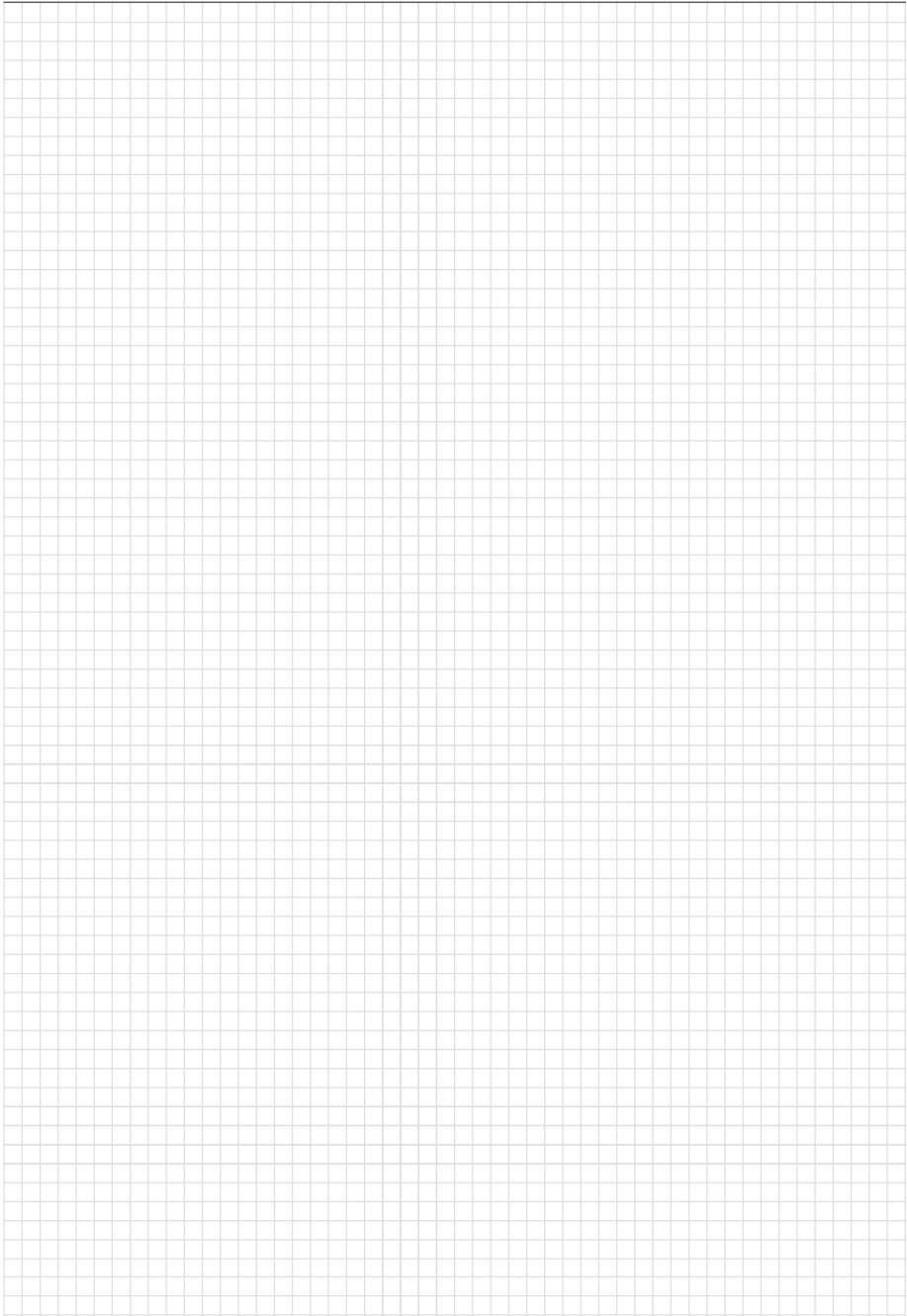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2부	오전	6:0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memo.



memo.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첨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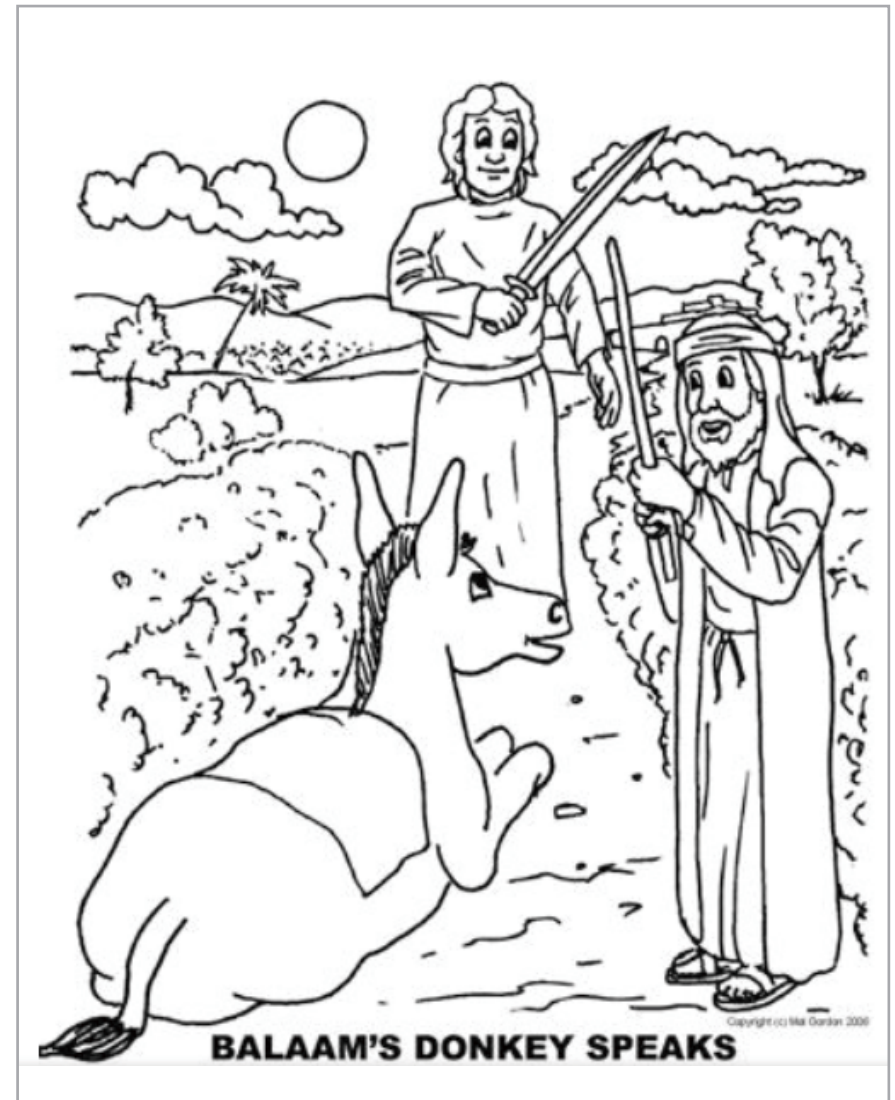
1월 가정예배 실천표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주간	실천 (0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다섯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발람과 그의 나귀

[민수기22:30-31]을 읽고 발람의 나귀가 발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보면서 그림을 예쁘게 색칠하세요



꽃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비르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유리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칭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물쭈물하시던 너희 아바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6월 5주

$$\begin{aligned} 0 &= \frac{1}{\mu} \text{의 } \hat{A} - \lambda_1 - \lambda_2 \text{의 } \text{노름} = 0 \text{ 이므로} \\ 0 &= \frac{1}{\mu} \text{와 } \hat{A} - \lambda_1 - \lambda_2 \text{가 } 0 \text{이므로} \end{aligned}$$
[illegible]

레시-르니기-후서 3자-5자

조에서 내리 마름 입도후-오여

위-나-니의 사-라-고-그리-스-도-의 이-내-서

등-어-기-게 위-서-기-를 상-하-하-나-라

첫째새끼12자랑 2주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첫째새끼에게 부리니
너는 복이 되자리라